

최치원과 진성여왕, 기로에 선 선택

2017. 11. 16.

조인성*

- 1. 기울어져 가는 천년왕국
- 2. 난세의 군주 진성여왕
- 3. 최치원의 좌절

1. 기울어져 가는 천년왕국

1) 재해, 기근 그리고 봉기

- (1) 헌덕왕 7년(815) 여름 5월, 눈이 내렸다. 가을 8월, 서쪽 변방의 주와 군에 큰 기근이 들어 도적들이 봉기하자 군사를 파견하여 토벌하였다.
- (2) 8년(816) 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절동(浙東) 지방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170명이었다.
- (3) 11년(819) 3월, 도둑떼들이 여기저기서 봉기하였다. 임금의 모든 주와 군의 도둑 및 태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붙잡아 오도록 하였다.
- (4) 13년(821) 봄, 백성들이 굶주리자 그 자식을 팔아서까지 생존하기도 하였다.
- * 흥덕왕 3년(828) 4월 : 한산주(漢山州) 표천현(瓢川縣) 요인(妖人), 속부지술(速富之術)

2) 조신(調信)의 꿈

(꿈에 김흔의 딸과 결혼한) 조신은 대단히 기뻐하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 여년을 살고 자녀 다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 뿐이요, 나물죽으로도 끼니를 잊지 못하였다. 마침내 실의에 찬 두 사람은 서로 잡고 끌고 하며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사방을 떠돌아 다녔다. 이와 같이 10년을 사는 동안에 두루 초야를 유람하니 입은 옷은 갈갈이 찢어져 몸을 가릴 수 없었다. 마침 명주의 해현령(蟹峴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된 큰 아이가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역임, 현 고문.
 대표논저 : 『태봉의 궁예정권』(2017, 푸른역사), 『최치원의 역사서술』(1982, 『역사학보』 94-95 합집), 『최치원 찬술 비명의 주석에 대한 일고』(1994, 『가라문화』 11), 『"낭해 화상탑비명"의 찬술과 최치원』(2001, 『성주사와 낭해』, 서경문화사), 『최치원의 좌절』(2001, 『중한최치원학술연토회 논문집』, 중국 양주)

홀연히 굶어 죽었다. 통곡하며 [주검을] 거두어 길에 묻었다. 남은 네 자녀를 거느리고 [두 부부] 우곡현 羽曲縣(지금의 우현 羽縣)에 이르렀다. 길가에 띠풀을 묶어 짐삼아 살았다. 부부는 늙고 또 병들고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열 살 짜리 딸 아이가 밥을 빌러 돌아다녔는데 마을 개에게 물려 앞에 누워 아픔을 호소하니, 부모가 목이 메어 흐느껴 울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3) 왕위다툼

- (1) 김헌창의 난
- (2) 흥덕왕 사후의 왕위다툼

개성(開成) 원년(서기 836) 병진에 흥덕왕(興德王)이 돌아가시고, 물려받을 적장자가 없자 왕의 사촌동생 균정(均貞)과 다른 사촌동생의 아들 계룡(梯隆)이 서로 왕위를 이어받고자 다투었다. 이때 김양은 균정의 아들인 아찬 우징(祐徵)과 균정의 매부인 예징(禮徵)과 함께 균정을 받들어 왕으로 삼고 적판궁(積板宮)에 들어가 사병으로서 숙위케 하였다. 그때 계룡의 일당인 김명(金明), 이홍(利弘) 등이 적판궁을 포위하였다. (중략) 4년(서기 839) 정월 19일, 김양의 군사가 대구(大丘)에 도착하자 왕(민애왕)이 병사를 보내 항거하였다. 양의 군대가 이들에 맞서 싸우니 왕의 군대가 패배하여, 생포되거나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때에 왕이 허둥지둥 도망하여 이궁(離宮, 별궁)으로 갔으나 병사들이 찾아내어 죽였다.

4) 몰락의 조짐

- (1) 제49대 헌강대왕(憲康大王) 때는 경사(京師)에서 해내(海內)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연이어져 있었으며,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래 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철마다 순조로웠다.
- (2) 신라의 전성시대에 서울 안 호수가 178,936호(戶)에 1,360방(坊)이요, 주위가 55리(里)였다. 서른다섯 개 금입택(金入宅)(부잣집 큰 저택을 말함)이 있었다.
- (3) 왕이 또한 금강령(金剛嶺)에 행차했을 때에 북악(北岳)의 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옥도금(玉刀鈴)이라고 했고 또 동례전(同禮殿)의 잔치 때에는 지신(地神)이 나타나 춤을 추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지백(地伯) 급간(級干)이라고 했다.

《어법집(語法集)》에서 이르기를, “그때 산신(山神)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지리다도파도파(智理多都波都波)라고 하였다”고 한 것은 대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사태를 미리 알고 많이 도망했으므로 도읍이 장차 파괴된다는 것을 말함이다. 곧 지신(地神)과 산신(山神)은 나라가 장차 멸망할 것을 알았으므로 춤을 추어 그것을 경계했던 것이나 나라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상서(祥瑞)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여 향락에 너무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나라가 마침내 망하였다.

2. 난세의 군주 진성여왕

1) 여왕의 재등장

(1) 성은 김씨. 이름은 만(曼). 할아버지는 희강왕의 아들로 의공대왕에 봉해진 김계명이며, 할머니는 광화부인으로 광의왕태후로 봉해졌다. 아버지는 경문왕이고, 어머니는 현안왕의 장녀로 뒤에 문의왕후에 봉해진 영화부인 김씨이다. 형제로는 정(暲 : 현강왕)·황(晙 : 정강왕)이 있다.

(2) 정강왕 2년(887) 여름 5월, 임금이 병이 들어 시중 준홍에게 말하였다. “나의 병이 위독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뒤를 이을 자식은 없으나, 누이동생 만(曼)은 천성이 명민하고 골법(骨法)이 장부와 같으니, 그대들이 선덕왕과 진덕왕의 옛 일을 본받아 그녀를 왕위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

(3) 현안왕 5년(861) 봄 정월에 왕이 병으로 침상에 누워 위독하자 좌우의 신하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과인은 불행하게도 아들은 없고 딸만 두었다. 우리나라의 옛 기록에 비록 선덕과 진덕의 두 여왕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암담이 새벽을 알리는 일에 가까운 것이니 본받을 수 없다. 사위 응림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노성한 덕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대들이 왕으로 옹립해 섬긴다면 반드시 조상의 위대한 업적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과인이 죽더라도 또한 마음을 놓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제27대 선덕여왕 : “성골남진(聖骨男盡)”

** 제28대 진덕여왕 : “이상 중고(中古)로 성골이고, 이하 하고(下古)로 진골”

2) 문란한 정치

(1) 진성여왕 2년(서기 888) 임금이 평소에 각간 위홍(魏弘)과 정을 통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늘 궁중에 들어와서 일을 보게 하였다. 위홍이 죽자 혜성대왕(惠成大王)이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2) 이후로 임금은 젊은 미남 두세 명을 몰래 불러들여 음란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요직을 주어 나라의 정사를 맡겼다. 이 때문에 아첨하고 총애를 받는 자들이 방자하였고, 뇌물을 주는 일이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며, 상과 벌이 공정하지 못하고 기강이 문란해졌다.

(3) 위홍 : 監脩成塔事 守兵部令 平章事 伊干(경문왕), 상대등(현강왕)

3) 비등(沸騰)하는 비판 여론

왕거인(王居仁): 다라니(陀羅尼. 呪文) 은어(혹은 榜文)

“나무망국 찰니나제 판니판니 소판니 우우삼아간 부이사바하(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 蘇判尼 于于三阿干 梟伊娑婆訶).” 풀이하는 이가 말하기를 “찰니나제(刹尼那帝)는 여왕을 말하고 판니판니 소판니(判尼判尼 蘇判尼)는 두 소판을 말한 것이니, 소판은 관작(官爵)의 이름이요, 우우삼아간(于于三阿干)은 서너 명의 총신을 말한 것이며, 부이(梟伊)는 부호(梟好)를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나무”: 민다.

** “사바하”: 진언(眞言)의 끝에 붙여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말. 사바사바의 어원?

4) 농민들 벌떼처럼 일어나다

3년(서기 889) 나라 안의 여러 주와 군에서 공물과 세금을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국가재정이 궁핍하였다. 임금이 사람을 파견하여 독촉하니, 이로 인하여 도처에서 도적이 봉기하였다. 이때 원종(元宗), 애노(哀奴) 등이 사벌주(沙伐州)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임금이 나마 영기(令奇)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사로잡게 하였으나, 영기가 적들의 보루를 보고 두려워하여 진군하지 못하였다. 촌주(村主) 우련(祐連)이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죽었다. 임금이 칙명을 내려 영기의 목을 베고, 나이가 10여 세에 불과한 우련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촌주가 되게 하였다.

5) 농민봉기군의 해인사 습격

五臺山 吉祥塔詞와 序 사문 僧訓 지음
기유년(889)에서 을묘년(895)까지 7년간에
천지가 온통 난리로 어지러워 들판이 전쟁터가 되니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행동이 짐승과 같았다.
나라가 기울어질 듯하고 재앙이 절에까지 이르니
나라와 三寶를 지키려는 승속의 바람이 같은데
칼날이 수풀에 낭자하고 몸은 바윗등에서 잃었구나.
哭僧軍

6) 적고적(赤袴賊)의 횡행

진성여왕 10년(896),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 그들은 바지를 붉게 물들여 스스로 남들과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고적(赤袴賊,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주와 현을 도륙하고, 서울의 서부 모량리(牟梁里)까지 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 백제의 橫暴한 도적

** 백제의 해적

7) 영웅의 등장 : 견훤

당나라 소종(唐昭) 경복(景福) 원년(서기 892)은 바로 신라 진성왕 6년인데, (중략) 견훤은 은근히 반란하려는 뜻을 품고 무리를 불러 모아 서울 서쪽과 남쪽 주, 현을 가서 치니, 가는 곳마다 모두 호응하여 한 달 만에 무리가 5천 명에 달하였다. 드디어 무진주(武珍州)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감히 공공연히 왕이라고 일컫지는 못하고 직접 서명하기를 ‘신라서면도통지휘병마제치절도독전무공등주군사행전주자사겸이사중상상주국한남군개국공식읍이천호(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二千戶)’라고 하였다.

8) 영웅의 등장 : 궁예

(1) 궁예(弓裔)는 신라 사람으로 성은 김씨이다. 아버지는 제47대 현안왕 의정(諱靖)이고 어머니는 현안왕의 후궁이었는데 그녀의 성명은 전해지지 않는다. 혹은 48대 경문왕 응렴(鷹廉)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5월 5일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지붕 위에 흰빛이 긴 무지개처럼 위로 하늘에 닿아 있었다. 일관(日官)이 아뢰었다. “이 아이가 오(午)자가 거듭 들어있는 날[重午日]에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이가 있으며 또한 광선과 불꽃이 이상하였으니, 장래 나라에 이롭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기르지 마옵소서.” 왕이 궁중의 사자(使者)를 시켜 그 집에 가서 그를 죽이도록 하였다. 사자는 아이를 포대기 속에서 꺼내어 누마루 아래로 던졌는데, 젓먹이는 종이 몰래 받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게 되었다. 그길로 안고 도망하여 숨어서 고생스럽게 길렀다.

(2) 건녕(乾寧) 원년(894)에 명주(溟州, 강원 강릉)로 들어가니 무리가 3천 5백 명이 되어 14개 대오로 나누었다. 김대(金大) 검모(黔毛), 혼장(昕長), 귀평(貴平), 장일(張一) 등을 사상(舍上)[부장(部長)을 말한다.]으로 삼고 사졸과 고락을 같이 하며, 주거나 빼앗는 일에 이르기까지도 공평하여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를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경애하여 장군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저족(猪足), 생천(狝川), 부약(夫若), 금성(金城), 철원(鐵圓) 등의 성을 쳐부수어 군세가 매우 불어났다. 패서(溟西)에 있는 도적들이 와서 항복하는 자들이 많았다. 선종은 내심 무리들이 많으니 나라를 세워 임금을 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외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우리 태조(太祖)가 송악군(松岳郡, 경기 개성)으로부터 와서 의탁하자 곧바로 철원군 태수의 직위를 주었다.

9) 양위(讓位)와 죽음

진성여왕 11년(897) 여름 6월, 임금이 측근들에게 말하였다. “근년 이래로 백성의 생활이 곤궁해지고 도적들이 봉기하니, 이것은 내가 덕이 없기 때

문이다. 숨어 있는 어진 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나의 뜻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왕위를 태자 요에게 물려주었다.

겨울 12월 을사에, 임금이 북궁(北宮)에서 돌아가셨다. 시호를 진성(眞聖)이라 하고, 황산(黃山)에 장사 지냈다.

10) 잘못된 선택

(1) 진성여왕 9년(895) 겨울 10월, 헌강왕의 서자 요(嶢)를 태자로 삼아 세웠다.

처음에 헌강왕이 사냥을 관람하다가 지나는 길 옆에서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녀의 자태가 아름다웠다. 왕이 마음속으로 그녀를 사랑하여 뒤쪽 수레에 태우라 명하고 유궁(帷宮, 장막을 쳐서 임금이 임시 거처하도록 만든 곳)에 와서 야합하였는데, 곧 바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장성하자 체격이 크고 용모가 걸출하여 이름을 ‘요’라고 하였다. 진성왕이 이 말을 듣고 궁 안으로 불러들여 손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하였다. “나의 형제와 자매의 골법(骨法)은 남들과 다른데, 이 아이의 등에 두 뼈가 솟아 있으니, 정말로 헌강왕의 아들이다.” 곧 관리에게 명하여 예를 갖추어 높이 봉하였다.

(2) 효종왕은 당시 셋째 재상인 서발한(舒發翰) 인경(仁慶)의 아들로서 아명은 화달(化達)이었다. 왕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스럽고 의젓한 면이 보인다고 생각하여, 왕의 형 헌강왕(憲康王)의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11) 진성여왕의 하야에 대한 시각

(1)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진성여왕의 자진 하야(2016. 11. 10)

진성여왕은 역사적으로 ‘음란한 여왕’이자 측근 정치의 전형으로 혹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왕은 신라 역사상 재위 중 생전에 왕위를 물려준 최초의 임금임을 아는 이는 적다. 새삼 여왕에 선언한 무조건 하야의 변이 떠오른다. “모두 내 부덕한 탓이다. 어진 이에게 양위할 것이다.”

(2) [이문영 물밑 한국사-25]

혼군이었던 신라 진성여왕 스스로 하야 염치는 있었다(2016. 12.12)

3. 최치원의 좌절

1) 조기 유학과 급제

(1) 나이 12세가 되어 배편으로 당에 들어가 유학하고자 할 때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10년이 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 힘써 노력하여라!”

최치원은 당에 도착하여 스승을 좇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건부(乾符) 원년

갑오(874)에 예부시랑(禮部侍郎) 배찬(裴贇) 아래에서 단번에 급제하였다.

(2) 같은 해에 급제한 고운(顧雲)의 송별시

(상략) 열두 살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十二乘船渡海來

문장은 중화국을 감동시켰네.文章感動中華國

열여덟 살에 전사원(戰詞苑)에서 거리낌없어十八橫行戰詞苑

한 화살 쏘아 금문책(金門策)을 깨었네.一箭射破金門策

2) 文名을 떨치다

(1) 『계원필경(桂苑筆耕)』 20권.

(2) 격황소서(檄黃巢書)

광명(廣明) 2년(881, 신라 헌강왕 7년) 7월 8일, 제도도통검교태위(諸道都統檢校太尉) 아무〔某 가 황소(黃巢)에게 알리는 바이다. (중략) 하물며 너는 평민의 천한 것으로 태어났고, 농민으로 일어나서 불 지르고 겁탈하는 것을 좋은 피라 하며, 살상(殺傷)하는 것을 급한 임무로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는 큰 죄만 있고, 속죄될 조그마한 착함은 없었으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땅 가운데 귀신까지 가만히 베어 죽이려고 의론하리라. 비록 잠깐 동안 숨이 붙어 있으나, 벌써 정신이 죽었고, 닢이 빠졌으리라. 대범 사람의 일이란 것이 내가 저를 아는 것이 제일이다. 내가 헛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모름지기 살펴 들으라.

(3)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에는 “최치원의 『사륙집(四六集)』 1권과 『계원필경(桂苑筆耕)』 20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주(注)에는 “최치원은 고려인으로서 빈공과(賓貢科, 중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고병(高駢)의 종사관이 되었다”고 하였다.

* 이규보(李奎報) 「당서에 최치원전을 세우지 않은 데 대한 논의(唐書不立崔致遠傳議)」(『동국이상국집』 권22)

3) 당에서의 좌절

(과거 급제 후) 선주(宣州) 울수현위(溧水縣尉)에 임명되었다. 877년 겨울 울수현위를 사직하고 일시 경제적 곤란을 받게 되었으나, 양양(襄陽) 이위(李憇)의 문객(門客)이 되었다. 곧 이어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고변(高駢)의 추천으로 관역순관(館驛巡官)이 되었다. 그 뒤, 4년간 고변의 군막(軍幕)에서 표(表)·장(狀)·서계(書啓)·격문(檄文) 등을 제작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 공적으로 879년 승무랑 전중시어사 내공봉(承務郎殿中侍御史內供奉)으로 도통순관(都統巡官)이 되었으며, 겸하여 비은어대(緋銀魚袋)를 하사받았다. 이어 882년에는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4) 문병을 맡다.

- (1) 귀국: 28세가 되자 귀국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 회종(僖宗)이 그의 뜻을 알고 광계(光啓) 원년(885)에 그에게 조서를 가지고 신라를 예방하게 하였다(헌강왕 11년 3월).
- (2) 외교문서
- (3) '사산비명' : '성주사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명'(국보 제8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령탑비명'(국보 제47호), '대승복사비명',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명'(보물 제138호).

5) 외직으로 돌아

- (1) 지방관
최치원은 중국으로 유학한 이래 얻은 바가 많다고 생각하여 돌아온 뒤에는 자기의 뜻을 펼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왕조 말기여서 의심과 시기가 많아, 이러한 생각이 용납되지 못하고 외직으로 나가 대산군(大山郡: 지금의 전라북도 태인) 태수가 되었다(890). 천령군(天嶺郡: 지금의 경상남도 함양)·부성군(富城郡: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 등지의 태수(太守)를 역임하였다.
- (2) 해인사 묘길상탑기(895)
“唐나라 19대왕 昭宗이 中興을 이룰 때에 전쟁과 흉년의 두 재앙이 서쪽에서 멈추어 동쪽에 와서, 나쁜 중에 더욱 나쁜 것이 없는 곳이 없었고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즐비하였다.”

6) 시무책

진성여왕 8년(894) 봄 2월, 최치원(崔致遠)이 시국에 관한 의견 십여 조목(時務一十餘條)을 작성하여 바쳤다. 임금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최치원을 아찬으로 삼았다.

7) 은퇴 및 죽음

- (1) 치원은 서쪽에서 대당을 섬길 때부터 동으로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도 모두 어지러운 시절을 만나 처신하기가 어렵고 걸핏하면 허물을 뒤집어쓰니, 스스로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갈 뜻이 없었다. 유유자적 노닐며 자유로운 몸이 되어 산림이나 강과 바닷가에 누각과 정자를 짓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놓고 책을 베개 삼아 읽고 풍월을 읊조렸다.
- (2) 경주의 남산(南山), 강주(剛州)의 빙산(氷山), 합주(陝州)의 청량사(淸涼寺), 지리산(智異山)의 쌍계사(雙溪寺), 합포현(合浦縣, 경남 창원)의 별장과 같은 곳이 다 그가 노닐었던 곳이다. 마지막에는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伽耶山) 해인사(海印寺)에 은거하면서, 형인 승려 현준(賢俊) 및 정현(定玄)대사와 도우(道友)를 맺고 한가롭게 지내다가 노년을 마쳤다.

8) 고려와 신라

- (1)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의하면, 고려 왕건(王建)에게 보낸 서한 중에는 “계림은 시들어가는 누런 잎이고, 개경의 곡령은 푸른 솔(鷄林黃葉 鶴嶺靑松)”이라는 구절이 있다.
- (2) 은거하고 있던 해인사에는 희랑(希朗)과 관혜(觀惠) 등 두 사람의 화엄종장(華嚴宗匠)이 있어서 서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며 대립하고 있었다. 즉, 희랑은 왕건을 지지한 반면, 관혜는 견훤(甄萱)의 지지를 표방하고 있었다. 그 때에 최치원이 희랑과 교분을 가지고 그를 위해 시 6수를 지어준 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 (3) 최치원은 역사의 중심무대가 경주에서 송악지방으로 옮겨지고 또 그 주인공도 경주의 진골귀족이 몰락하는 대신에 지방의 호족세력이 새로 대두하고 있던 역사적 현실을 직접 눈으로 내다보면서 살다간 사람이었다. 비록 그 어느 편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사회적인 전환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미 잔존세력에 불과하던 신라인으로 남아서 은거생활로 일생을 마치고 말았으나, 역사적 현실에 대한 고민은 그의 후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9) 유교사관에 입각한 역사가

- (1) 『제왕연대력(帝王年代曆)』
- (2)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나 「상태사시중장(上太師侍中狀)」
- (3) 한국고대사체계: 삼한-삼국-통일신라.

10) 3교 회통(會通)

최치원은 「난랑비(鸞郎碑)」 서문(序文)에서 말하였다.

“우리나라에 현묘(玄妙)한 도가 있으니 ‘풍류(風流)’라 한다.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는 선사(仙史)에 자세히 밝혀져 있거니와, 실로 이는 유불선 삼교(三教)를 포괄하여 못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에 들어와서는 효를 행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함은 노나라 사구(司寇, 공자)의 가르침이고, 억지로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말없는 가르침을 실천함은 주나라 주사(柱史, 노자)의 뜻이며, 모든 악행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하라 함은 축건태자(竺乾太子, 석가모니)의 교화이다.”

11) 시진평과 최치원

- (1) 시진평 중국국가 주석은 지난 2013년 6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최치원의 한시(漢詩) '범해(泛海) 중 “掛席浮滄海 長風萬里通 (괘석부창해 장풍만리통 : 돛 걸고 푸른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 만리를 통하네)”를 인용하였다.

(2) 서울에서 열린 '2015 중국 방문의 해' 개막식의 시진핑 주석 축하메시지

한중문화교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자고로 '만권의 책을 읽으면 만 리를 여행한 것과 같다'는 말을 숭배해 왔다. 한국의 시인 최치원은 한반도를 '동쪽 나라 화개동은 호리병 속의 별천지'라며 예찬하였다. 한국국민은 중국문화의 깊은 잠재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중국국민들은 한국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여행을 포함한 인문교류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튼튼한 기초를 닦아줄 것이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1~30권)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